2021 년 4 월 25 일 주일 말씀

10 가지 재앙

출애굽기 7-12 장

"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,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.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." (7:4-5)

열 재앙은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. 열 재앙은 그 전초전과 같은 성격의 예비 대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(출 7:8-13)
그 다음, 세 재앙씩 묶어진 세 세트의 재앙, 즉 3x3=9, 아홉가지 재앙이 세 세트의 재앙입니다. 마지막에는 종결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열 재앙이 끝이 납니다.

다음은 열 재앙의 특징들입니다. 첫째, 각 세트의 A 재앙, B 재앙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 됩니다. 이 때, 그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**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**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.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. 그런데,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절합니다. 그러자, 각 세트의 C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.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.

두 번째로, 바로의 요술사들도 예비 대결과 1 재앙, 2 재앙까지는 그 재앙을 따라했는데, 3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 없게 된점입니다. 이 때,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이 시점부터 바로와 요술사들이 **구분되기 시작**합니다.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대결할 생각 조차 안하게 됩니다.

희한하게, 그 다음 재앙인 4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을 **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**. 이것이 열 재앙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. 7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, 8 재앙이 되면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백성들을 보내라고 탄원을 하기에 이릅니다. 바로는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고립됩니다.

넷째, 바로의 반응의 변화입니다. 바로는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무시해서 듣지 않았다가, 2 재앙때 처음으로 그는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는 4 재앙 때 처음으로 "가라!" 고 명령하지만, **가까운 곳으로만** 가라고 합니다. 8 재앙 때가 되면 두번째로 "가라!"고 하는데, 남자만 가라고 하고, 9 재앙 때는 가축은 놓고 가라고 합니다.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됨이 없으십니다. 그는 7 재앙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, 8 재앙 때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. 그러나, 결국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고, 10 재앙까지 가서 자기 분신인 첫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을 보냅니다.

열 재앙 속에 담겨진 첫째 영적 의미는, 하나님이 **여호와 하나님**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선포하신다는 점입니다.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. 그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**Lordship 을 갖는, 진짜 신**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이집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, **온 세상에 공포하신 것**입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고, **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** 두려워 할 줄 알게 만드신 배려입니다.

둘째,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**예수님의 구속 사역**을 미리 보게 됩니다. 종결 재앙의 어린양은 **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**. 또한,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은 **예수님의 대속** (redemption)을 상징합니다.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한 파라오의 신하 에게도 해당되었 듯이, 오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.

나눔을 위한 질문

1.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인가요? 왜 그렇다고 (혹은, 그렇지 않다고) 생각하시나요?
2. 열 재앙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?
3. 열 재앙을 통해 예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?